

##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서 은 주<sup>1)</sup>

경북외국어대학교 헬스케어복지학부

이 현 림<sup>2)</sup>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은 첫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성인애착은 통제집단보다 안정될 것이다. 둘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은 통제집단보다 향상될 것이다. 셋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어머니와 자녀 상호작용 수준은 통제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연구대상은 D시 소재 초등학교~1, 2학년 학생의 어머니 2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0명씩 무선 배정하여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Fraley, Waller 및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애착 도구를 김성현(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척도는 Rapee(1997)가 개발한 척도를 장은경과 오경자(2004)가 번안한 척도(PCI; Parent-Child Interaction)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각 요인의 사전-사후검사에서 얻은 점수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하위 영역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성인애착 수준이 통제집단보다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불안·회피 수준이 낮아졌다. 둘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셋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어머니와 자녀 상호작용 수준은 통제집단보다 의미 있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내적작동 모델

\* 본 논문은 2008년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1) 경북외국어대학교 헬스케어 복지학부 교수

2)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E-mail : hrllee@yu.ac.kr)

## I. 서론

아동이 사회적 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면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요인이 부모이다. 부모는 아동의 지적, 정의적 행동발달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하고 부부로서 적응기간을 충분히 갖기 전에 첫 아이를 가지면서 준비되지 않은 채 부모로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전우경, 2002). 이에 자녀를 가정에서 올바르게 양육, 지도하기 위한 부모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Fine, 1988).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Ainsworth, 1962). 애착이론의 중심내용은 초기 발달단계에서 부모(양육자)와 자녀의 상호작용 과정, 즉 양육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애정과 환경의 질에 따라 아동의 나머지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아동과 달리 불안한 환경에서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아동은 무의식 속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성장하여 부정적이고 왜곡된 성격이 형성되며 신경증과 같은 정신 병리를 겪게 된

다. 또한 어렸을 때 주된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초기 애착의 질이 후기의 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은 다음 세대까지 전이되어 또 다른 애착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 특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Van Ijzendoorn, 1995).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애착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장 커다란 주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의 질적 차이, 원인,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애착관계의 질적 차이는 Ainsworth, Blehar, Waters 및 Wall(1978)이 개발한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파악하여 어머니-영아의 애착을 안정, 불안정-회피, 불안정-저항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애착유형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애착 경험, 즉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의 질과 관계 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로써 애착관계의 질적인 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왜 어떤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남들보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Barnett, Kidwell, & Leung, 1998). Bowlby(1988)가 설명한 내적 실행 모델은 애착 특성의 안정성에 대한 것으로 일단 형성된 애착 관계의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의심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의 특성과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후기의 발달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착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불안정 애착아의 치료를 위한 접근과 불안정 애착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현실적으로 더 시급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한 예방적 접근 보다 불안정 애착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더 많이 연구해왔다. 주로 불안정 애착아와 어머니의 내적 경험을 변화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하면서,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관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Fraiberg, 1980). 이러한 치료적 방법의 한 방편으로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이 향상되거나 유아의 애착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적인 효과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났지만, 치료적 프로그램이 목적했던 자녀의 불안정 애착 특성을 안정 애착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이미 형성된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구자들은 불안정 애착의 형성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애착 형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부모-자녀의 관계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었던 이전의 경향과는 대조되는 변화이다.

따라서 치료 프로그램은 예방적 접근으로 안정애착을 위협하는 요인을 찾아내서 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맞추었다. 그러나 기존의 치료 프로그램들이 간과

한 것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 자신의 애착 유형과 관련된 것이다. 애착이론에 근거한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의 초점은 부모-자녀와의 관계였으며, 자녀의 애착 유형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거나 자녀가 안정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적 접근이 중요시되었을 뿐이다. Bowlby(1969)에 따르면, 어머니의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국 어머니 자신과 남편, 자녀, 타인 및 다른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기존 프로그램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애착 경험, 즉 어머니의 양육자로부터의 보살핌의 질과 관계 경험이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결국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존의 부모-자녀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간과된 점을 토대로 하여, 어머니의 애착은 계속 유지되고 남편과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인 자녀에 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자기탐색에 초점을 맞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Bowlby(1988)는 아동을 치료하면서 정신 병리의 원천이 실제 대인관계 경험이라고 확신했다. 양육자가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감지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부모의 아픈 기억들이 직면되고 혼슈되어야만 자신의 아이와 정서적으로 열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이 과정은 단기 개입만으로는 어

럽다고 하였다(장미자, 1998).

즉, 자녀의 안정적 애착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려면 어머니의 애착관련 표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민감한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좋은 성격, 긍정적인 사고, 부드러운 감성 등이다. 초기 발달단계부터 세상에 대한 신뢰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란다면 자녀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를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Mundell과 Tyler(1981)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부모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보면,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발달과 적응 측면에서 부모의 자신감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를 결코 가치나 존중감을 가진 독립된 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도 결코 성숙될 수 없으며, 자기의식이 부족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Stair, 1983). 그러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가 가족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자존감을 향

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편, McGillicuddy-De Lisi(1982)는 부모와 자녀 간의 누적된 상호작용의 경험을 토대로 아동들의 행동이 형성되는데, 부모의 행동과 신념은 아동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미묘하게 전달된다고 하였으며, Miller(1988)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부모의 행동이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상호작용 유형이 달라지므로, 아동을 능동적인 구성자로 인식하는 부모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반면, 아동발달에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부모들은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신념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는 이를 토대로 행동을 학습하게 되므로 부모의 태도와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관계에서 형성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대물림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애착증진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육 민감성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구성원들은 가족관계와 작은 사회집단을 경험하며 각 개인은 집단지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의 권위적인 인물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집단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심리역동을 관찰하여 가족관계와 유사한 집단 장면 속에서 현재 자녀와의 문제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통찰하고 교정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증

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이 간과한 부분과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가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착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가설은 첫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통제집단보다 안정될 것이다. 둘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통제집단보다 높아질 것이다. 셋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어머니와 자녀 상호작용은 통제집단보다 높아질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대상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D시 소재 2개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머니 965명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검사(PQR)와 자녀의 K-CBCL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193명을 제외한 총 772명의 자료를 기초하여 첫째, 양육효능감(PQR)질문지 점수 하위 30%(부모가 자기 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집단/점수는 129점 이하)이면서 동시에 행동문제 총점수 상위 30%(행동문제가 있고 점수는 11점 이상)를 만족시키는 아동의 어머니 83명을 추출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안내와 참가동의서를 이들 83명에게 발송하여 30명의 어머니가 참가에 동의하였다. 참가에 동의한 30명의 어머니 중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탈락자 10명을 제외한 2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0명씩 무선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하게 '36~40세'가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실험집단은 '10년 이하(5명)', 통제집단은 '11~15년(6명)'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실험집단에서는 '대학교(6명)'가 가장 많았고, 통제집단에서는 '대학(4명)', '대학교(4명)'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수준은 '중'이 두집단 동일하게 8명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도 두 집단 동일하게 2명이 가장 많았다.

### 2.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 과정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활동계획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나 성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하위 활동의 조직된 집합체'라고 하였다(김창대, 2002;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2007).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교과과정 개발과 달리 적용범위가 목적과 유형, 이론적 접근, 대상 집단, 장소, 제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개발과정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김창대는 ① 목표 수립 ② 프로그램의 구성 ③ 예비연구 및 장기적 효과 제고 노력 ④ 프로그

표 1.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 프로그램<br>개발단계 | 1단계<br>목표<br>수립             | 2단계<br>프로그램의<br>구성     | 3단계<br>예비연구와<br>프로그램 수정   | 4단계<br>프로그램<br>실시와 평가  |
|--------------|-----------------------------|------------------------|---------------------------|------------------------|
| 프로그램<br>하위단계 | ① 요구 분석<br>② 프로그램의 목표<br>수립 | ① 이론적 검토<br>② 프로그램의 구성 | ① 예비연구<br>② 프로그램 수정<br>보완 | ① 프로그램 실시<br>② 프로그램 평가 |

램 실시와 개선의 네 단계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제시하였다. 애착이론에 근거한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표 1과 같았다.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1단계: 목표수립.**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애착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문제행동의 원인, 해결방안, 프로그램 활동 등을 이해하는 한편, 대상자의 범위를 선정하여 요구조사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는지 파악한 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였다.

첫째, 요구분석 단계에서는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핵심 요인과 개발 원리를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애착문제가 자녀에게 생애에 걸쳐 비교적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Bowlby, 1980), 애착으로 인한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원에 초점을 두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활동을 조직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형태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한 D시 소재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머니 965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검사와 자녀의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 List)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발생한 193명을 제외한 772명 중 부모자녀관계 질문지 점수 하위 30%(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집단이며, 점수는 129점 이하) 이면서 동시에 행동문제 전체 총 점수 상위 30%(행동문제가 있고, 점수는 11점 이상)를 만족시키는 아동의 어머니 83명을 추출하였다. 83명에게 어머니-자녀 애착만족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어머니들의 요구 정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목표수립은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 변화 또는 획득해야 할 태도, 사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양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애착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애착 하위 차원인 불안과 회피 수준

이 낮아지고, 둘째,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이고, 셋째, 모-자녀의 상호작용이 향상되는 데 있었다.

**2 단계: 프로그램의 구성.** 애착이론에 근거한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모-자녀 애착증진 모형을 구성하였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생애초기에 부모 또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애착 유형은 보살핌의 질, 다시 말해 부모나 양육자가 얼마나 일관적이고 따뜻하며 민감하게 반응하였는가, 또한 필요할 때에 얼마나 접근 가능하였는가에 따라 안정적 애착, 또는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발달된다(Ainsworth, 1962). 애착연구자들(Bowlby, 1988; Kilmann, 1999)은 애착에 초점을 두어 내담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내적 작동모형을 탐색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절하고 경직된 내적 작동모형을 재평가하고 그 근원을 탐색하여, 내담자의 적응을 도우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초기 성장 과정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유아의 다양한 요구들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 애착행동 전략을 대인관계에서 지속하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와의 애착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는 어머니들과 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돕기 위하여, 애착연구자들이 강

조한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개입을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적 작동모델의 탐색, 통찰, 수정에 해당하는 내용과 활동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Bowlby(1988)가 제시한 치료적 변화 과정에 따라 모-자녀의 안정적 애착을 증진하기 위하여, 집단 내에서 안전 기지를 경험하도록 하고, 애착경험이 끼친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며, 내적 작동모델 및 애착행동 전략을 재평가하고 수정하도록 하여, 스스로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지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 및 활동으로 조직되었다.

애착관련 문제는 부모 자신의 불안정한 내적작동모델의 수정과 관련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내적작동모델의 수정을 위해 기존의 국내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구성과는 달리 집단분석적 방법(Marrone, 2000)을 프로그램의 중심활동으로 함으로써 부모로 하여금 초기 아동기 경험에서 생성된 개념과 가정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을 안전 기지로 한 자유연상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고, 과거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었던 부모의 사고를 촉진시킴으로써 양육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였으며 이는 부모 자신이 발견한 내적작동모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3 단계: 예비연구와 프로그램 수정.** 예비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행 및 참여의 용이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매개변인의 적절성을 파악

표 2. 프로그램 목표, 내용 및 절차

| 회기 | 주제                       | 목표                                                                   | 내용 및 절차                                                                                                                                                                                            | 시간<br>(분) |
|----|--------------------------|----------------------------------------------------------------------|----------------------------------------------------------------------------------------------------------------------------------------------------------------------------------------------------|-----------|
| 1  | 애착, 행복의 조건 속으로           | 1. 동기유발<br>2. 상담자와 집단원들 간의 신뢰관계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소개</li> <li>· 참가자 자기소개(별칭 짓기)</li> <li>· 참가자들의 부모교육에 대한 기대 및 목표나누기</li> <li>· 프로그램 참여 시 유의사항(서약서 쓰기)</li> <li>· 애착관련 비디오 시청('세상으로의 첫 걸음')</li> </ul> | 150       |
| 2  | 성격은 타고나는 것과 길러지는 것의 합    | 1. 성격에 대한 이해<br>2. 양육자의 중요성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li> <li>· 애착은 타고난 생존본능</li> <li>· 애착의 중요성과 양육자의 역할</li> <li>· 애착관련 비디오 시청('기질')</li> </ul>                                                            | 150       |
| 3  | 자녀양육-애착이론에서의 조명          | 1. 정상발달에서의 애착형성<br>2. 자녀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이해<br>3. 안정애착에서 정서적 가용성의 중요성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의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의 중요성</li> <li>· COS(Circle of Security) 설명</li> <li>· 애착전략(부록9참조)</li> <li>· 애착관련 비디오 시청('애착')</li> </ul>                               | 150       |
| 4  | 내 부모를 알아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게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속에서 정서적 거리</li> <li>·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li> </ul>                                                                                                           | 150       |
| 5  | 내 부모를 알아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게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애착유형-성인 애착 패턴</li> <li>· 부모와의 아동기 경험</li> </ul>                                                                                                      | 150       |
| 6  | 나는 어떤 부모인가?              | 대물림의 발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애착패턴과 자녀양육</li> <li>· 부모의 양육패턴은 자식을 통해 대물림된다.</li> </ul>                                                                                              | 150       |
| 7  | 어머니의 미해결 과제 탐색 (1)       |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재 경험의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 떠올리기</li> </ul>                                                                                                                       | 150       |
| 8  | 어머니의 미해결 과제 탐색 (2)       | 미해결 과제의 이해와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기 기억들</li> <li>· 기억의 기제</li> </ul>                                                                                                                      | 150       |
| 9  | 상호작용 1 (여기-지금)           | 내적 작동모델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이성적 감정상태(Low Road) 이성적 인지상태(High Road)</li> <li>· 새로운 관계 방식으로</li> </ul>                                                                                 | 150       |
| 10 | 상호작용 2 (여기-지금)           | 내적 작동모델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에게 병리를 유발하는 의사소통 방식 실습하기</li> </ul>                                                                                                                     | 150       |
| 11 | 상호작용 3 (여기-지금)           | 의사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를 유발하는 부모의 행동 패턴</li> </ul>                                                                                                                             | 150       |
| 12 | 새로운 출발                   |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를 통한 자녀 치료사례의 주요 반응 제시</li> <li>· 경험보고서와 나의 다짐</li> </ul>                                                                                              | 150       |

할 수 있게 되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수정보완이 가능해지므로, 결과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D시 00지역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어머니로서,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연령의 학모로서, 학력은 고졸과 대졸로 구성되었다. 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총 12회기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및 개선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애착 정도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이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나누면서 따뜻함을 느꼈다’,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유익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예비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점으로 제안한 회기 시간, 진행 형태, 의사소통기법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상

담경력 10년 이상의 수련감독전문가(한국상담학회) 3명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표 2와 같았다.

**4 단계: 프로그램 만족도 및 목표 도달 평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목표 도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목표 도달 정도는 표 3과 같았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유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에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프로그램 전체 회기 수 및 진행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약간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평가조사의 주관식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주 1회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시간에 있어서는 쓰기와 발표하기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 진행의 특성 때문에 정해진 시간

표 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목표도달 정도(n=10)

| 영역            | 평가 내용               | 평균   | 표준편차 |
|---------------|---------------------|------|------|
| 프로그램<br>만족도   |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4.03 | .79  |
|               | 프로그램의 유익성           | 4.14 | .76  |
|               | 주변에 프로그램 추천 여부      | 4.22 | .83  |
| 프로그램<br>시행 절차 |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    | 4.26 | .66  |
|               | 회기 수 및 진행시간에 대한 만족도 | 3.91 | .60  |
| 목표달성<br>정도    | 자기 이해와 자녀 이해        | 4.06 | .66  |
|               | 애착의 중요성 이해          | 4.16 | .72  |
|               | 어머니-자녀의 애착 상호작용 이해  | 4.20 | .76  |
|               | 어머니-자녀의 노력 및 개선점 파악 | 4.16 | .70  |

을 넘어선 것 때문이었다. 한편,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자기 및 애착이해 영역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모-자녀 애착증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아졌으며,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은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검증

평정 결과는 Haxbleton과 그의 동료들이 실용화한 내용 타당도 평정법(Content Validity Index: CVI)에 의해 산출하였다(Guilford & Fruchter, 1981). 애착 이론 근거한 본 프로그램은 각 회기별 목표에 맞게 구성된 12개의 각 회기별 활동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정점수는 ‘매우 적합하다’와 ‘적합하다’의 5점과 4점에 평정한 점수의 합은 219점이었고, 1에서 5점에서 평정한 총 전체 합계 점수는 240점이어서 내용 타당도는  $CVI=219/240=.91$ 이었다. 이 점수는 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이 매우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프로그램 진행절차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하여 집

단상담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이론적 모형을 세워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2008년 2월부터 실험집단 어머니 10명에게 성인애착면접 검사(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08년 2월 25일에 예비모임을 가진 후, 프로그램을 2008년 2월 29일부터 2008년 4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실시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150분씩 총 12회기로 진행되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연구(김계현, 김영혜, 김수임, 2002) 결과, 집단상담의 진행 구조가 정기적인 경우, 회기 수는 10~14회기의 구조가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2회를 주 1회씩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전 요구조사 결과 프로그램에 대해 참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진행 구조였기 때문이나, 첫 1, 2회기는 참가자들의 사정으로 첫 1주에 2회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한국 상담학회 1급 상담사, 정신역동적 부모교육 전문가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부모교육 집단상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검사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사후-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4.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검증

| 전문가 | A           | B           | C           | D           |
|-----|-------------|-------------|-------------|-------------|
| 자격  | 수련감독<br>전문가 | 수련감독<br>전문가 | 수련감독<br>전문가 | 상담심리<br>전문가 |
| 점수  | 54          | 54          | 56          | 55          |
| 합계  | 219( .91)   |             |             |             |

### 3. 도구

####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ley, Waller 및 Brennan(2000)이 문항반응 이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을 김성현(2004)이 변안한 성인애착 유형 검사(AS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의 두 하위 차원인 '불안'과 '회피요인'이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측면을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불안은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경계하는 차이이며, 회피는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차원이다. 각 차원의 총합이 높을수록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애착 형성이 불안정하고 애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9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불안 차원은 .84, 회피 차원은 .87이었다.

#### 자아존중감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79) 척도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전반적인 자기 수용성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 모-자녀 상호작용 척도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Rapee(1997)가 개발한 척도(PCI: Parent- Child

Interaction)를 장은경과 오경자(2004)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본적으로 부모용으로 제작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모-자녀 간의 상호작용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모-자녀 상호작용 척도는 7단계로 응답할 수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게 되고, '예'라고 응답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행동의 빈도를 1~6번까지 응답하게 구성되었으며, '아니오'에 1점으로 하여 2~7점으로 배점하게 된다. 하위 척도로는 훈육행동에 자녀의견 존중(11문항), 강압 및 처벌행동(14문항), 독립적 행동의 격려(8문항), 비밀관적 행동(10문항)과 애정표현에 정서적 애정표현(7문항), 활동공유를 통한 애정표현(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65문항). 강압 및 처벌행동과 비밀관적 행동은 역채점하였으므로 총점이 높을수록 모-자녀 상호작용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녀의견존중 .87 강압 및 처벌행동 .77 독립적 행동의 격려 .86 비밀관적 행동 .82 정서적 애정표현.83 활동공유를 통한 애정표현 .83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자녀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 4. 자료 분석

연구의 자료 분석은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

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효과

##### 성인애착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았다.

##### 성인애착의 공변량 분석

모-자녀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성인애착 전체에서는 실험 집단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의 하위영역의 불안과 회피에서도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 애착 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들의 안정적 애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어 불안과 회피를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 애착의 전체 척도에서는 사전검사 점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성인애착이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불안, 회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들의 안정적 애착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성인애착의 추후검사 공변량 분석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성인애착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추후검사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분석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 애착의 전체 척도에서는 사전검사 점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성인애착이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성인애착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 하위<br>영역 | 집단 | 사전( $n=10$ ) |           | 사후( $n=10$ ) |           | 추후( $n=10$ ) |           | 공변인에 의해<br>수정된 사후값 |           | 공변인에 의해<br>수정된 추후값 |           |
|----------|----|--------------|-----------|--------------|-----------|--------------|-----------|--------------------|-----------|--------------------|-----------|
|          |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 불안       | 실험 | 46.20        | 14.33     | 38.20        | 12.13     | 41.70        | 9.45      | 39.49              | 2.39      | 42.66              | 3.03      |
|          | 통제 | 49.90        | 12.81     | 50.20        | 11.81     | 44.40        | 13.53     | 48.91              | 2.39      | 43.43              | 3.03      |
| 회피       | 실험 | 68.70        | 14.12     | 56.80        | 14.51     | 62.60        | 14.32     | 58.13              | 3.19      | 63.76              | 3.05      |
|          | 통제 | 72.10        | 15.60     | 72.40        | 15.89     | 72.50        | 13.36     | 71.06              | 3.19      | 71.33              | 3.05      |
| 전체       | 실험 | 114.90       | 25.28     | 95.00        | 23.51     | 104.30       | 17.87     | 97.52              | 4.60      | 106.36             | 4.02      |
|          | 통제 | 122.00       | 23.09     | 122.60       | 20.87     | 116.90       | 19.50     | 120.07             | 4.60      | 114.83             | 4.02      |

표 6. 성인애착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 하위영역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불안   | 공변인 | 1616.36  | 1   | 1616.36 | 28.48*** |
|      | 집단간 | 434.81   | 1   | 434.81  | 7.66*    |
|      | 집단내 | 964.83   | 17  | 56.75   |          |
|      | 전체  | 3301.20  | 19  |         |          |
| 회피   | 공변인 | 2446.57  | 1   | 2446.57 | 24.13*** |
|      | 집단간 | 824.91   | 1   | 824.91  | 8.13*    |
|      | 집단내 | 1723.42  | 17  | 101.37  |          |
|      | 전체  | 5386.80  | 19  |         |          |
| 전체   | 공변인 | 5333.13  | 1   | 5333.13 | 25.43*** |
|      | 집단간 | 2483.78  | 1   | 2483.78 | 11.84**  |
|      | 집단내 | 3565.26  | 17  | 209.72  |          |
|      | 전체  | 12707.20 | 19  |         |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성인애착 추후검사 공변량 분석

| 하위영역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불안   | 공변인 | 903.88  | 1   | 903.88  | 9.92*    |
|      | 집단간 | 2.91    | 1   | 2.91    | .03      |
|      | 집단내 | 1548.62 | 17  | 91.09   |          |
|      | 전체  | 2488.95 | 19  |         |          |
| 회피   | 공변인 | 1881.14 | 1   | 1881.14 | 20.34*** |
|      | 집단간 | 282.07  | 1   | 282.07  | 3.05     |
|      | 집단내 | 1571.78 | 17  | 92.45   |          |
|      | 전체  | 3942.95 | 19  |         |          |
| 전체   | 공변인 | 3580.94 | 1   | 3580.94 | 22.39*** |
|      | 집단간 | 349.84  | 1   | 349.84  | 2.18     |
|      | 집단내 | 2718.06 | 17  | 159.88  |          |
|      | 전체  | 7092.80 | 19  |         |          |

\* $p < .05$ , \*\*\* $p < .001$

## 2.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8과 같았다.

###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전체 척도에서는 사전검사 점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아존중감의 추후검사 공변량 분석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자아존중감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분석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전체 척도에서는 사전검사 점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자아존중감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 영역    |    | 사전( $n=10$ ) |           | 사후( $n=10$ ) |           | 추후( $n=10$ ) |           |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값 |           |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추후값 |           |
|-------|----|--------------|-----------|--------------|-----------|--------------|-----------|-----------------|-----------|-----------------|-----------|
|       |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 자아존중감 | 실험 | 27.50        | 5.12      | 32.00        | 5.35      | 29.60        | 4.47      | 31.95           | .90       | 29.56           | .71       |
|       | 통제 | 27.40        | 4.06      | 27.70        | 3.94      | 27.60        | 4.47      | 27.74           | .90       | 27.63           | .71       |

표 9.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 영역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i>F</i> |
|-------|-----|--------|-----|--------|----------|
| 자아존중감 | 공변인 | 258.12 | 1   | 258.12 | 31.34*** |
|       | 집단간 | 88.95  | 1   | 88.95  | 10.80**  |
|       | 집단내 | 139.97 | 17  | 8.23   |          |
|       | 전 체 | 490.55 | 19  |        |          |

\*\* $p < .01$ , \*\*\* $p < .001$

표 10. 자아존중감 추후검사 공변량 분석

| 영역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자아<br>존중감 | 공변인 | 201.65 | 1   | 201.65 | 39.34*** |
|           | 집단간 | 18.57  | 1   | 18.57  | 3.62     |
|           | 집단내 | 87.14  | 17  | 5.12   |          |
|           | 전 체 | 308.80 | 19  |        |          |

\*\*\* $p < .001$

### 3.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 모-자녀 상호작용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1. 모-자녀 상호작용 사전-사후-추후검사 비교

| 하위<br>영역      | 집단 | 사전( $n=10$ ) |       | 사후( $n=10$ ) |       | 추후( $n=10$ ) |       | 공변인에 의해<br>수정된 사후값 |      | 공변인에 의해<br>수정된 추후값 |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자녀의견<br>존중    | 실험 | 37.50        | 10.18 | 44.20        | 11.66 | 35.50        | 10.59 | 43.72              | 2.76 | 35.21              | 3.00 |
|               | 통제 | 35.20        | 11.11 | 31.00        | 6.00  | 32.90        | 8.45  | 31.40              | 2.76 | 33.18              | 3.00 |
| 강압 및<br>처벌행동  | 실험 | 47.60        | 10.18 | 32.20        | 5.18  | 39.90        | 10.18 | 31.15              | 1.89 | 35.63              | 2.47 |
|               | 통제 | 35.30        | 7.39  | 31.60        | 5.58  | 34.50        | 7.90  | 32.64              | 1.89 | 38.76              | 2.47 |
| 정서적<br>애정표현   | 실험 | 20.10        | 4.58  | 28.90        | 5.44  | 24.20        | 6.06  | 28.90              | 1.50 | 24.20              | 1.46 |
|               | 통제 | 20.10        | 4.58  | 21.30        | 4.92  | 24.60        | 4.67  | 21.30              | 1.50 | 24.60              | 1.46 |
| 활동공유<br>애정표현  | 실험 | 37.00        | 8.34  | 44.80        | 7.37  | 44.40        | 9.50  | 44.80              | 2.04 | 44.40              | 2.32 |
|               | 통제 | 37.00        | 8.34  | 39.00        | 7.61  | 41.30        | 6.12  | 39.00              | 2.04 | 41.30              | 2.32 |
| 비일관적<br>행동    | 실험 | 30.60        | 11.31 | 24.50        | 4.81  | 26.60        | 4.50  | 23.47              | 1.59 | 25.91              | 1.49 |
|               | 통제 | 20.50        | 4.60  | 20.60        | 4.81  | 24.20        | 4.23  | 21.63              | 1.59 | 24.89              | 1.49 |
| 독립적<br>행동의 격려 | 실험 | 26.60        | 6.44  | 29.30        | 11.73 | 25.60        | 7.96  | 29.42              | 2.63 | 25.71              | 1.88 |
|               | 통제 | 27.20        | 10.06 | 22.90        | 4.30  | 25.50        | 5.01  | 22.77              | 2.63 | 26.38              | 1.88 |
| 전체            | 실험 | 199.40       | 19.32 | 203.90       | 27.36 | 196.20       | 33.84 | 199.29             | 7.61 | 186.71             | 7.86 |
|               | 통제 | 175.30       | 30.33 | 166.40       | 20.33 | 184.00       | 26.39 | 171.01             | 7.61 | 193.49             | 7.86 |

표 12. 모-자녀 상호작용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 영역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자녀의견존중        | 공변인 | 257.60   | 1   | 257.60  | 3.39    |
|               | 집단간 | 757.02   | 1   | 757.02  | 9.97**  |
|               | 집단내 | 1290.00  | 17  | 75.88   |         |
|               | 전체  | 2418.80  | 19  |         |         |
| 강압및처벌행동       | 공변인 | 40.10    | 1   | 40.10   | 1.41    |
|               | 집단간 | 7.12     | 1   | 7.12    | 25      |
|               | 집단내 | 481.89   | 17  | 28.34   |         |
|               | 전체  | 523.80   | 19  |         |         |
| 정서적 애정표현      | 공변인 | 101.47   | 1   | 101.47  | 4.49*   |
|               | 집단간 | 288.80   | 1   | 288.80  | 12.80** |
|               | 집단내 | 383.52   | 17  | 22.56   |         |
|               | 전체  | 773.80   | 19  |         |         |
| 활동공유를 통한 애정표현 | 공변인 | 303.08   | 1   | 303.08  | 7.27*   |
|               | 집단간 | 168.20   | 1   | 168.20  | 4.03*   |
|               | 집단내 | 708.52   | 17  | 41.67   |         |
|               | 전체  | 1179.80  | 19  |         |         |
| 독립적 행동의 격려    | 공변인 | 225.40   | 1   | 225.40  | 3.24    |
|               | 집단간 | 220.88   | 1   | 220.88  | 3.17    |
|               | 집단내 | 1181.59  | 17  | 69.50   |         |
|               | 전체  | 1611.80  | 19  |         |         |
| 비일관적 행동       | 공변인 | 55.90    | 1   | 55.90   | 2.63    |
|               | 집단간 | 12.25    | 1   | 12.25   | .57     |
|               | 집단내 | 360.99   | 17  | 21.23   |         |
|               | 전체  | 492.95   | 19  |         |         |
| 전체            | 공변인 | 1704.56  | 1   | 1704.56 | 3.30    |
|               | 집단간 | 3200.43  | 1   | 3200.43 | 6.21*   |
|               | 집단내 | 8758.73  | 17  | 515.22  |         |
|               | 전체  | 17494.55 | 19  |         |         |

\* $p < .05$ , \*\* $p < .01$

표 13. 모-자녀 상호작용 추후검사 공변량 분석

| 영역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 자녀의존존중        | 공변인  | 129.47   | 1   | 127.47  | 1.44    |
|               | 집단간  | 20.17    | 1   | 20.17   | .22     |
|               | 집단내  | 1523.92  | 17  | 89.64   |         |
|               | 전체   | 1687.20  | 19  |         |         |
| 강압및처벌행동       | 공·변인 | 673.35   | 1   | 673.35  | 13.92** |
|               | 집단간  | 31.78    | 1   | 31.78   | .65     |
|               | 집단내  | 822.04   | 17  | 48.35   |         |
|               | 전체   | 1641.20  | 19  |         |         |
| 정서적 애정표현      | 공변인  | 163.05   | 1   | 163.05  | 7.59*   |
|               | 집단간  | .80      | 1   | .80     | .03     |
|               | 집단내  | 364.94   | 17  | 21.46   |         |
|               | 전체   | 528.80   | 19  |         |         |
| 활동공유를 통한 애정표현 | 공변인  | 234.63   | 1   | 234.63  | 4.35*   |
|               | 집단간  | 48.05    | 1   | 48.05   | .89     |
|               | 집단내  | 915.86   | 17  | 53.87   |         |
|               | 전체   | 1198.55  | 19  |         |         |
| 독립적 행동의 격려    | 공변인  | 196.27   | 1   | 196.27  | 5.55*   |
|               | 집단간  | 2.21     | 1   | 2.21    | .06     |
|               | 집단내  | 600.62   | 17  | 35.33   |         |
|               | 전체   | 800.95   | 19  |         |         |
| 비일관적 행동       | 공변인  | 25.04    | 1   | 24.04   | 1.33    |
|               | 집단간  | 3.77     | 1   | 3.77    | .20     |
|               | 집단내  | 318.95   | 17  | 18.76   |         |
|               | 전체   | 372.80   | 19  |         |         |
| 전체            | 공변인  | 7221.65  | 1   | 7221.65 | 13.11** |
|               | 집단간  | 183.91   | 1   | 183.91  | .33     |
|               | 집단내  | 9357.94  | 17  | 550.46  |         |
|               | 전체   | 17323.80 | 19  |         |         |

\* $p < .05$ , \*\* $p < .01$

살펴보면 표 11과 같았다.

#### IV. 논 의

##### 모-자녀 상호작용의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모-자녀 상호작용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았다.

분석 결과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자녀 상호작용의 전체 척도에서는 사전검사점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녀의견존중, 정서적 애정표현, 활동공유를 위한 애정표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강압 및 처벌행동, 독립행동의 격려, 비밀관적 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들과 자녀들의 상호작용 중 정서적애정과 활동공유, 자녀의견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모-자녀 상호작용의 추후검사 공변량 분석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모-자녀 상호작용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았다.

분석 결과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자녀 상호작용의 전체 척도에서는 사전검사점수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집단의 모-자녀 상호작용이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첫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유의미하게 안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집단상담을 통하여 애착 수준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연구결과는 자신과 자녀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한번 형성되면 지속하려는 경향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가 쉽지 않지만 경험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된다는 연구(Waters & Deane, 1985)를 지지하였다. 이는 안정적 애착 증진을 통한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상호작용 질의 향상을 의미하며,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또한 어머니의 안정적 애착이 자녀의 안정된 애착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Lieberman, Weston, & Pawl, 1991)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참여자들이 집단을 안전 기지로 삼아 자신의 내부세계와 자녀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되고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애착경험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애착 유형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불안정한 내적작동모델 수정의 변화까지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은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둘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과 연속선상에 있었으며(홍경자, 2007), 구조화된 애착중심 집단상담 개입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Kilmann(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아 존중감 수준의 의미 있는 증진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 내적 작동모델의 자기 표상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요인으로 자기이해와 더불어 어머니 역할의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집단 활동을 경험해 보고, 부모교육이란 새로운 문화 경험과 배움에 대한 성취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다소 어색해 하고 소극적이었던 태도가 서로의 성격이나 문제에 대한 생각과 조언을 나누면서 집단원끼리 지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보여 진다.

Mundell과 Tyler(1981)는 부모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보면,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발달과 적응 측면에서 부모의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를 결코 가치나 존중감을 가진 독립된 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Satir, 1983),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결코 성숙될 수 없으며, 자기의식이 부족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가 가족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셋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관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 관계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Collins & Read, 1994)를 지지하였으며, 안정된 애착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밝힌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이는 초기 아동기 경험에 대한 통찰이 어머니 자신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 어떤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자아상이 자신의 양육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지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자신의 내적작동모델에 대한 인식은 애착행동 전략과 양육태도에 대한 재평가 및 수정을 통하여 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대물림’에 대한 자각과 집단 상담을 통한 어머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작업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향상되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감소되어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증진을 위한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들이 집단상담을 통하여 애착 수

준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참여자들이 친밀감과 응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친해지면서, 참여자들이 집단을 안전 기지로 삼아 자신의 내부 세계와 자녀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애착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둘째, 집단상담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자기이해와 더불어 어머니 역할의 이해와 집단원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성공적인 관계 경험, 집단상담 경험을 통한 성취감 등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자신의 부정적 지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왜곡된 반응에 대하여 통제력을 갖게된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요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증진된 결과로 모-자녀 상호작용 관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은 자녀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애착 수준과 내적작동모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머니의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는 이론적 주장에 기초하여 비교적 단기적인 집단상담 개입을 통한 애착증진의 변화 가능성과 자아존중감, 모-자녀 관계의 증진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연구의 결론을 통해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 참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애착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다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집단구성원들의 특성, 요구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 배경, 개인별 심리적 외상, 교육 수준 등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속변인들 간에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계현, 김영혜, 김수임 (2002).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의 실체와 연계체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11), 31-53.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과 타당화 연구(확증적 요인분석과 문장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5-119.
- 김창대 (2002). 상담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2007).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 간 전이: 어머니의

-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은경, 오경자 (2004). 부모 자녀 상호작용 평가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9-813.
- 전우경 (2002). 영아의 애착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경자 (2007).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69-182.
- Ainsworth, M. D. (1962). The effect of maternal deprivation: A review of findings and controversy in the context of research strategy. In *Deprivation of maternal care: A reassessment of its effects*, Public Health Papers 14 (pp. 97-165).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Ainsworth, M. D.,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arnett, D., Kidwell, S. L., & Leung, K. H. (1998). Parenting and preschooler attachment among low-income urban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9, 1657-1671.
- Bartholomew, M. J., & Horowitz, F.(1991). Less is more: Meta-analyses of sensitivity and attachment interventions in early childhood. *Psychological Bulletin*, 129, 195-215.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ollins, B. S., & Read, V. K. (1994).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 through: Lessons from attachment-based interventions. In J. Osofsky, & H. Fitzgerald (Eds.), *WAIMH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in groups at high risk* (pp.35-89). New York: Wiley.
- Fine, M. J. (1988).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Fraiberg, S. A. (1980). Attachment and early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2, 44-52.
- Fraley, G. C., Waller, M. T., & Brennan, A. C. (2000).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Guildford, J. P., & Fruchter, B. (1981). *Fundamental statistic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 Kilmann, M. J. (1999). The importance of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disorganized attachment: Evidence from a preventive intervention study in adoptiv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263-274.
- Lieberman, A. F., Weston, D. R., & Pawl, J. H. (1991). Preventive intervention and outcome with anxiously attached dyads. *Child Development*, 62, 199-20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rone, M. (2000). *Attachment and interaction*. London: JESSICA kingsley.
- McGillicuddy-De Lisi, A. V.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family constell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teaching strategies. In L. M. Laosa, & I. E. Sigel (Eds.), *Families as learning environment for children* (pp.261-300). New York: Plenum Press.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 285.
- Mu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 of problem 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Rapee, R. M. (1997). The potential role of child rearing practice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 Behavior Books.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 403.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 41-65.

1차 원고접수 : 2011. 4. 17

수정원고접수 : 2011. 5. 18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 The Effect of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on Mothers'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Parent-Child Interaction

Eun-Joo Suh

Dept. of Welfare & Healthcare  
Kyongb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yun-Rim Lee

Dept.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on mothers' adult attachment, their self esteem, and parent-child interaction.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first, 1)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would have more stable adult attachment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2)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group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would improve their self esteem more than the control group. 3)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would make a more positive change in terms of their mother-child interaction than the control group. The subjects were 20 mother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D city, Korea, with 10 mothers each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12 sessions of the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were carried out for the experimental group for 120 minutes per session. To comparing in the differences on the mothers' adult attachment, self esteem,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group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analysis of covari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first, 1)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showed meaningfully lower attachment levels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2)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showed meaningfully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3) The experimental which participated in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showed meaningfully higher levels of mother-child interaction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refore,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participants'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parent-child interaction levels.

*Key words : attachment improvement parent-education group counseling, adult attachment, self-esteem, parent-child interaction, internal functioning model*